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인기

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서
광어회 도시락 등 완판 행진
수협 등 높아지는 기온에
소비 촉진·판매 대책 고심



26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신촌동 보리매 축구공원 입구에서 열린 '완도 광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현장에서 구매를 위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 광주와 여수 등 전국 곳곳에서 양식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Drive-thru) 판매 행사가 열렸다.

낮 최고기온이 연일 20도를 웃돌아 사실상 마지막 '드라이브 스루'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민간 등은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남 양식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 사흘째인 26일 오후 2시께 찾은 광산구 신촌동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장은 구매를 위한 차량이 1km 넘게 줄을 지어 있었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까지 나올 동안 이곳에서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을 벌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전남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일 마련된 수량은 완도에서 생산된 광어회(450g) 도시락 100개로, 전남서부 어류양식수협이 판매 담당 가공했다.

광어회 판매 가격은 기존보다 40% 저렴한 1만5000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

난 24일부터 광주와 여수·서울·세종·제주·포항·하동 등에서 열리고 있는 판촉 행사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광주공항 입구에서 20여 분 줄을 서지만 회 도시락을 받는 데는 10초가 채 되지 않았다. 이날 준비된 물량은 40여 분 만에 동이 났다.

판매장에서 만난 김주영(45)씨는 "주말 가족 나들이 가는 길에 회 도시락을 구매했다"며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이 편하지만 차량 1대당 구매량이 1개로 제한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전남지역 민물장어양식

수협과 서남해수어류수협은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에서 열린 '심심장터'에 양식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지만 낮 기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다른 소비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 당국이 마련한 '드라이브 스루' 외에도 양식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민간 차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4일부터 5월7일까지 매일 100kg에 달하는 서해안 활꽃게(100g당 7800원)와 주꾸미(100g당 4600원)를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한다. 전국 GS 더 프레시 매장 320곳은

전남도와 최근 100억원 상당 300t 분량의 우수 수산물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28일까지 광어·우럭·전복·꼬막 등 수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2월 양식수산물 출하금액은 1월보다 15~40% 감소했고, 같은 시기 수산물 외 식업체 고객도 70% 이상 감소했다.

올해 3월 광어 출하량은 210t(kg당 1만 500원)으로 지난해 765t(kg당 1만770원)보다 72%, 우럭은 153t(kg당 7430원)으로 지난해 342t(kg당 8350원)보다 35%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저수지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에 적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진 발생 때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공사는 최근 지진 발생 때 인명·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저수지 긴급 지진-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시설에서 지진 감지 때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수분 내 평가해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R&D)과제에 선정돼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기술개발을 마쳤다. 이 기술은 연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진도 4.0 이상 국내 지진발생이 잦아지면서 저수지 149곳에 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면 긴급 지진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 중앙정부 및 시설물 관리자에게 대상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필요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콘크리트댐과 필댐 특성이 반영돼 평가 정확성을 더했다.

김인식 사장은 "긴급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이 적용되면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전한 저수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갈수록 대형화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국민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과잉생산' 해남 고구마 300t 판로 지원

이마트 등 5개 유통사 판매

과잉 생산된 해남 고구마 300t이 이마트와 속(SSG)닷컴,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개 유통사를 통해 전국 판매된다.

이마트는 농가 돕기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 300t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마트는 28일까지 213t 물량을 선보이며, 속닷컴(7t)·이마트에브리데이(12t) 등 3개사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를 진행한다. 판매 가격은 3kg 1봉지에 9980원으로, 제휴 카드로 구매하면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세계TV쇼핑은 27일 오후 7시35분 등 두 차례에 걸쳐 65t 물량(8kg 대용량·2만4900원)에 대한 판매 방송을 한다. 신세계푸드는 해남 고구마 3t을 매입해 '고구마 연유 브레드'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해남 고구마 생산량의 35%는 상대적으로 모양이 크고 길쭉해 재고가 쌓이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농가 돕기 프로젝트를 벌여 여수

현역 국물멸치 등을 연중 상시 판매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갑근 이마트 채소 구매 담당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약재배 농가를 통해 매입한 못난이 고구마를 판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전남본부, 농촌 일손 부족 해결위해 직접 나선다

영농철 인력 중개 등 일손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오는 6월까지 전사(全社)적 농촌 일손돕기를 펼친다.

전남본부는 코로나19 추세를 주시하면서 본격적 영농철인 4월~6월 농협육성단체와 자매결연 기업체, 유관기관 직원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35개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국내 인력 17만명을 중개할 방침이다. 농협 광주본부도 올해 동곡농협이 사업에 신규 참여하며 3개 지역농협이 농촌인력을 중개한다.

지난 23일에는 전남본부와 농협 무안군 지부, 정계농협 임직원 50여 명이 무안 청계 양파농가를 방문해 출하작업을 도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도 오는 29일까지 일손돕기에 나선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무안 청계 양파농가에서 출하작업을 돕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육묘업 의무 교육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한시적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업 등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육묘업 등록을 앞둔 업자들은 개정된 '종자산업법'에 따라 실습을 포함한 육묘업 교육을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육묘 분쟁관리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육묘장 시설 견학 등 현장실습 과정은 사이버교육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신청한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구글 줌 등)을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4곳이다.

접속 방법, 수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